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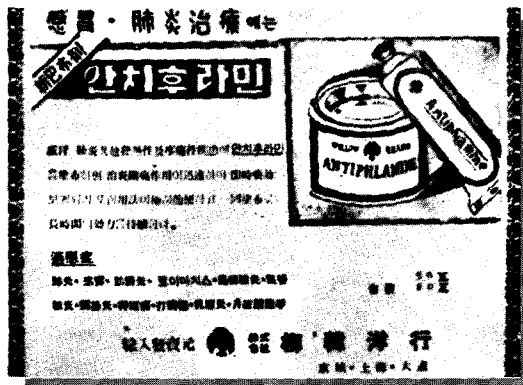


안티푸라민 포장의 변천

1933년 출시된 안티푸라민 연고는 유한양행의 역사와 더불어 탄생한 제품이며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수의약품으로 손꼽히고 있고, 지난 70여년 동안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아 왔다. 안티푸라민의 등장은 가난하던 시절, 동상이나 피부가 뜬 곳, 근육통 등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여 한때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질 때도 있었을 만큼 그 인기가 높았다. 가정상비약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대에도 각 가정마다 한 개씩은 있었던 안티푸라민 연고제품의 전통 못지 않게, 그 역사만큼이나 포장의 변천 또한 유구하다.

초창기 안티푸라민 신문 광고

일부 자료는 소실되어 문헌 등을 통해서만 포장 형태를 대략적으로 확인 해 볼 수 있으나, 초기 안티푸라민의 신문 광고를 볼 때 그림과 같은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좌: 구형 용기 형태(간호원 없음), 우: 변경용기(196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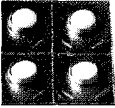
현재의 가정상비약의 상징인 간호사의 모습이 용기와 케이스에 등장하게 된 것은 1961년 6월이며 몇 차례 케이스 등 디자인 변경이 있었다.



Tin Can 포장과 플라스틱 용기 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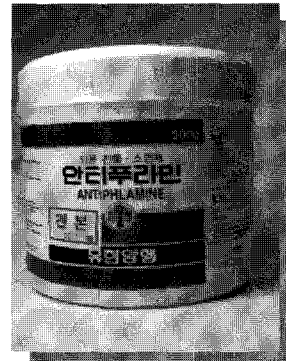
전통적인 안티푸라민 20g의 용기는 Tin Can을 사용해 왔으며 60g 포장의 경우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했다. 이 형태는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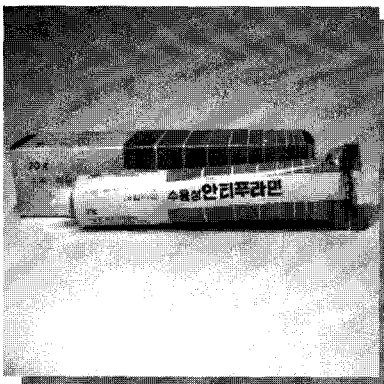
좌: 종이로 포장되어진 형태, 중: 안티푸라민 500g 유리병 포장, 우: 연재 포장

안티푸라민 연고는 20g과 60g 이외에도 500g용 포장에 있다. 이 포장의 용기는 유리병을 사용했는데 차광 및 제품보호의 목적으로 금속대신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종이상자 대신 포장지를 이용 외부를 정성껏 포장했다는 점인데, 당시 수작업에 의존하던 포장방법이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포장 자동화 현 공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포장방법이다. 하지만 유리병 포장은 무게가 무겁고 파손의 위험이 있어 이후 안정성 시험을 거쳐 플라스틱용기로 변경되었고 이 형태는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좌: 1975년 수용성 안티푸라민 크림 우: 1990년 안티푸라민 로오손

안티푸라민 제형의 다변화를 위해 1975년 수용성 안티푸라민 크림, 1990년 초 안티푸라민 로오손 등이 발매되기도 했다.



1990년대 포장용기의 개선


1990년대 후반에는 안티푸라민 20g 포장이 30g 포장으로 변경되면서, 캔의 개봉을 원활히 하고, 캡 끝 부분을 말아주어 기존의 날카로운 점을 보완하여 신형 금속용기를 개발하여 출품했다.

전 공정 자동화 및 규격 통일화를 위해 60g 포장도 금속캔으로 변경하여 적용했다.



2001년 포장의 개선

금년 초에는 안티푸라민 연고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현대적으로 이미지 변화를 위해 2년여의 제품 안전성 시험과 용기 디자인 등 개발과정을 거쳐 신형용기로 교체 적용했다. 용기의 재질은 ABS이며 소비자의 사용성 향상을 위해 Easy open & Close cap으로 변경되었다.

캡은 4분의 1회전시 개봉이 되고 닫을때는 살짝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30g과 60g에 적용했다. 

자료제공: 유한양행 품질보증팀

